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왼쪽)과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이 풍경소리에 성금을 전달하고 난 뒤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분지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밟이고 있는 찬불동요 CD보내기 캠페인에 미래불교를 격려하는 스님들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김제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이 4월 30일 좋은 벗 풍경소리에 금일봉을 전달하고, 찬불동요 창작 및 보급운동에 힘을 보탤다. 또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도 최근 좋은 벗 풍경소리에 찬불동요 보내기 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월주 스님은 이날 지구촌공생회 사무실에서 풍

경소리를 적극 후원하고 있는 원명 스님과 이중만 풍경소리 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1996년 조계종 총무원장 재직 당시 '포교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웠던 기억이 새롭다"며 "포교 분야중 불교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곳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찬불가를 통한 포교는 부처님 말씀을 쉽고 간절하게 새기고, 일체감을 준다"고 덧붙였다. "교계 포교의 문제점은 찾아오는 서비스에 지

“어린이 청소년포교 가장 큰 일”

월주-원명 스님, 찬불동요 CD보내기 캠페인에 성금

찬불동요 보급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스님은 "대중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포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찬불동요 창작 및 보급과 관련,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대비해 국내 및 북한,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족 난치병 어린이들을 비롯 미얀마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제3국 빈곤지역 어린이 청소년을 돕기 위해 (사)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한 월주 스님. 스님은 "라오스에 유치원 개원과 캄보디아 학교보수, 미얀마 약품전

"불자들의 평균연령 66세를 30-40년 밑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스님은 "우리 불교를 신바람 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변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젊은 불교를 만들기 위해 스님은 도봉사와 그 일대를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그 첫째가 도봉사 일구 600m를 어린이 청소년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연등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다. 도봉사는 어린이 청

월주 스님 “나눔 생활화 돼야” 강조

원명 스님 “신바람 나는 불교로 변해야”

달, 제3국 문맹퇴치 및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벗 풍경소리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은 "청소년 포교 없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스님은 "정적인 사회가 동적으로 바뀌어, 복잡한 경전말씀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귀에 와닿지 않는다"며 "마음으로 다가가는 소리를 통한 포교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년들이 언제나 찾아와 게임과 노래, 공연까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부처님 오신날에는 도봉중학교 전교생에게 햄버거를 선물할 예정이다. 원명 스님은 매일 도봉구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50가구에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찾아가 위로하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도와주께요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삼전초등학교와 배명중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결연후원금과 장학금 후원자를 찾는다. 결연후원자는 결식아동과 1:1 결연을 통해 후원금이 지원된다.

하나은행 : 557-81005-46004 (예금주 :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후원성금 기탁

♥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거주하고 있는 본지 독자인 교포 장지원 보살(무량사 신도)이 5월 6일 200달러(한화 23만원)를 국제우편으로 보내왔다. 장 보살은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국에서 밟이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매달 200달러씩 보내고,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은 성금을 보내드리겠다"고 편지에서 밝혔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한마을선원 불자가 아들(이재권)과 딸(이현희) 명의로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본지에 매달 각 5만원 후원성금 기탁을 신청했다. 극구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모씨는 "나눔의 운동이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은 정성을 보태게 됐다"고 말했다.

헌혈증 보내주신 분

경북 포항에서 장천수씨가 헌혈증을 보내왔다.

자원봉사 신청

경북 영주 김명자 보살이 20년 수련해온 기공처 및 수련지도 봉사처를 구하고 있다. 김보살은 "그동안 배운 것을 나눠주고 싶다"며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054) 634-5325

나눔의 스티커 신청

- 인천시 남구 학익1동 김연숙 스티커 100장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정성환 스티커 50장
-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성진민 스티커 20장
- 충북 음성군 감곡면 백광현 스티커 300장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나눔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수를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가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아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태안 안면암 낙도학생에 장학금



낙도장학회 김명순 회장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낙도 어린이·청소년 3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충남 태안군 낙도포교원 안면도 안면암 낙도장학회(회장 김명순)는 4월 25일 큰 법당에서 안면도 등 관내 7개학교 교장, 교감, 인솔교사 선생님 10여명과 허공장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 학생 30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낙도장학회 김명순 회

7개학교 30명에게 500만원 전달 '사회위해 삶 회향' 108배 성만

장은 "마음 안팎의 갖가지 장애를 이기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올바르게 자라나 사회를 위해 봉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면암 원주 설암 스님은 "2002년 김명순 불자가 1억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고, 구인회(회장 삼지) 스님들께서 동참하여 낙도 장학금의 액수와 수혜범위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학금 수혜학생 30여명은 전달식에서 앞서 '이웃과 사회를 위하는 삶으로 회향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108배 기도를 성만했다.

안면암 낙도장학회는 허공장회(지도법사 지명, 전 법주사 주지) 회원들이 낙도 포교 전진 기지로 낙도포교원 안면암을 건립하면서 2002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농어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스물일곱의 꿈 나눔으로 피웁시다

백혈병, 기증자 없어 절망의 나날

스물일곱 꿈 많은 청년불자가 급성 백혈병 치료비와 이식수술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5월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유양한 씨(26·사진)는 현재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간병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아버지가 지금 알콜 중독으로 실업상태에 있어 생계마저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류씨는 4천 여 만원이 넘는 수술비 총망도 큰 문제지만, 기증 받을 조혈세포 기증자가 나서지 않아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

도움을 주실 분은 후원계좌 번호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02)734-8050

김철우 기자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문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인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웃을 위한 나눔의 등 달아요”

대원정사

이웃돕기 3천등 달기...5월9, 16, 23일 모연

"나눔은 기쁨 자비의 3천등 달기 운동에 동참하세요"

서울 후암동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는 5월 26일까지 경내와 남산순환도로에 이웃을 돕는 나눔의 연등 3천개를 매단다.

연등은 한 개당 3천원이며, 연등봉사에 동참한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는 매일 축원기도도 해준다.

대원정사는 등을 구입하고 만드는 비용은 물론 운영비까지 모두 사찰이 부담하고, 연등값 1천여만원은 전액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성금으로 기탁한다는 방침이다.

대원정사는 "나눔은 기쁨 자비의 3천등 달기"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5월 9일, 16일, 23일 서울 공평동 공평사거리 옹골프라우 앞에서 거리모연에도 나선다. 일요일 거리 연등 모연 접수시간은 오후 2시~6시이다. 문의 (02)773-9171, 754-1613

우리는 선우

자비의 등 달기...5월26일까지 접수

"이웃과 사랑하는 이를 위한 자비의 등 5천등 달기운동에 참여하세요"

(사)우리는 선우는 5월 28일까지 장충단공원에서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친다. 5천등을 목표로 하는 자비의 등 보시금은 소외받고 있는 이웃과 장애우 등을 나누어 행사에 쓰여진다.

'심신의 건강 및 쾌유를 비는 등' '모든 인연의 도움에 감사하는 등' '복된 삶을 기원하는 등' '가정, 국가, 세계의 안녕을 기원하는 등' '학업, 직장, 사업 등의 성취를 기원하는 등' '사랑하는 이를 위한 등' '사랑하는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등'... 이렇게 이웃을 위한 10종류의 자비의 등이 매달린다.

자비의 등달기 접수기간은 3월 2일~5월 26일까지이며, 등 보시금은 일반 1만원, 대학생 5천원, 중고생 3천원, 군인 2천원이다. 문의 (02)2278-8672-3, buddhanews.com

김철우 기자